



다가오는 외국인

1) 중동계자금 Out, 유럽계자금 In

- 유가 하락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투자청과 두바이투자청을 중심으로 주식 비중 축소.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소극적인 행보
- 작년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주도했던 유럽계 자금은 올해 들어 순매수로 돌아섬
- 브렉시트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를 샀던 영국은 7월 7850억원의 상장주식 순매수

2) 신흥국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되면서 미국계 자금 유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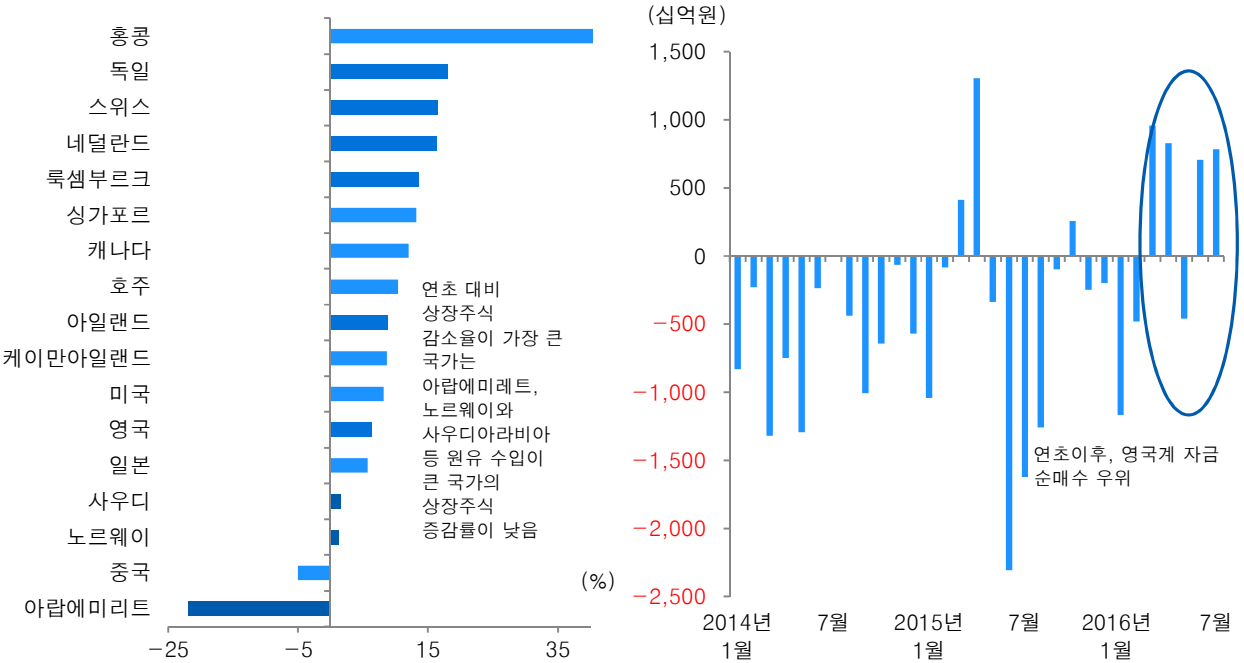
-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계 자금은 올해 들어 3조 4280억원 순매수
- 장기성 자금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은 뮤추얼펀드의 자금 흐름에 영향 받음
- 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증가는 미국계 자금 순매수 증가로 이어짐

3)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 증가 추세

- 작년 하반기부터 신흥국펀드 안에서 한국비중(단순평균) 증가세 지속. 기업실적 좋아지면서 한국 투자 매력 상승한 것으로 판단
- 신흥국 펀드 안에서 빠르게 비중이 늘어났던 중국과 인도는 올 상반기에는 비중 줄어듦
-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투자 비중은 소폭 증가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중동계자금 Out, 유럽계자금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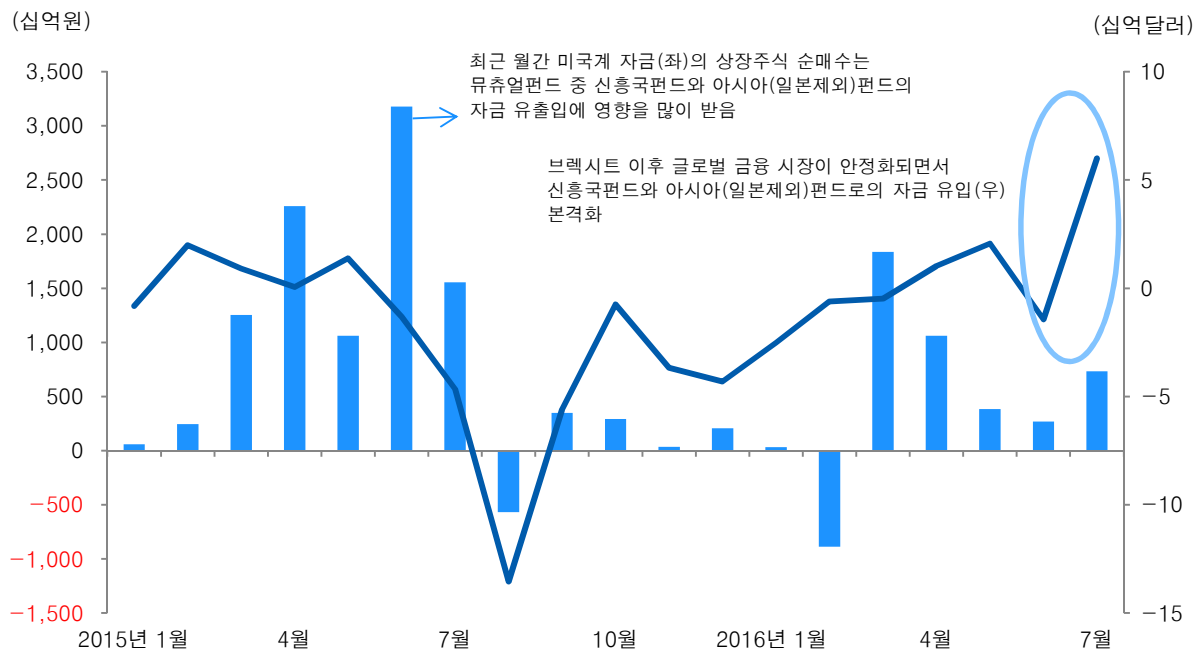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 월말 기준

- ▶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계 자금은 우리나라 상장주식 보유 늘리는 추세
- ▶ 유가 하락으로 재정압박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매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KOSPI 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7월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큰 국가는 영국(7850억원), 독일(7790억원), 룩셈부르크(7470억원) 등 유럽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유럽 국가와 미국이 순매수를 이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등으로 순매도 우려가 컸던 영국계 자금은 올해 들어 1조 1680억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올해 국가별 외국인 순매수의 특징은 중동계자금의 순매도와 유럽계자금의 순매수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아부다비투자청(ADIA)과 두바이투자청(ICD)이 순매도를 늘리면서, 작년말 8조 2540억원이었던 아랍에미리트의 상장주식 규모는 7월말 5조 342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4월부터 크게 증가하던 아랍에미리트의 순매도 규모가 7월 들어 잠잠해진 것입니다. 중동계 자금의 순매도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신흥국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되면서 미국계 자금 유입 증가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 최근 미국계 자금은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받고 있음
- ▶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이동하면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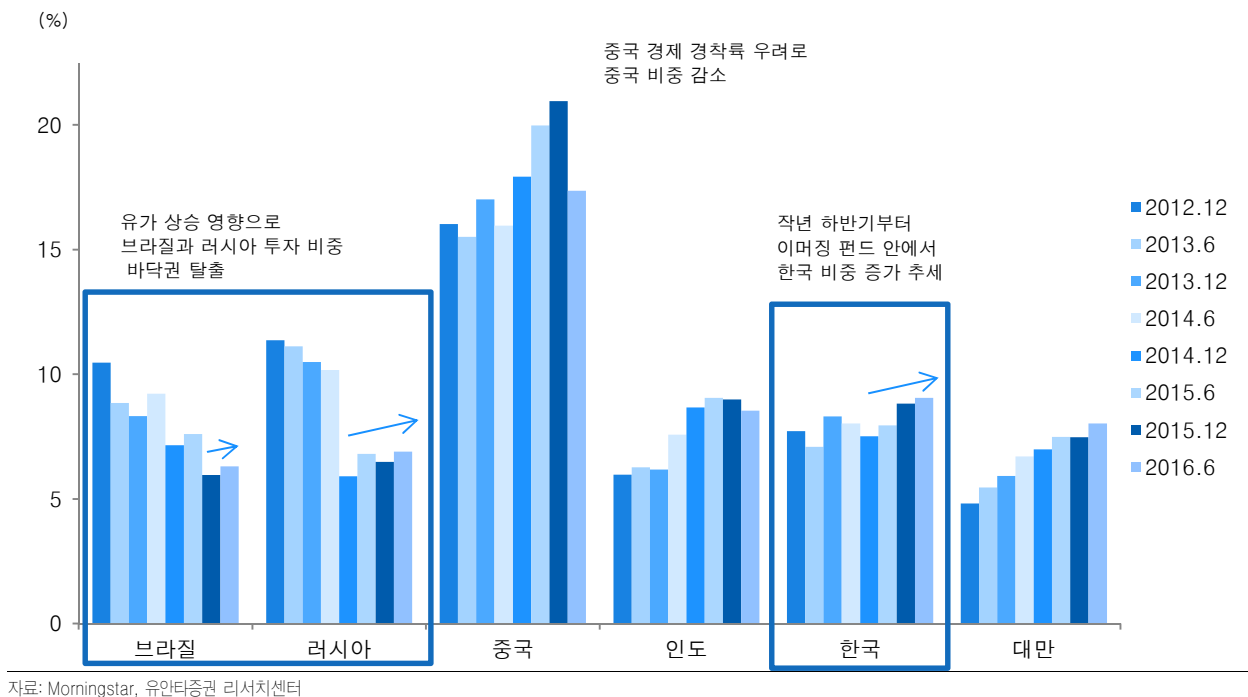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계 자금은 올해 들어 3조 4280억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달 동안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신흥국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면서 7월의 순매수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장기성 자금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은 뮤추얼펀드의 자금 흐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로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서, 미국계 자금의 2월 순매수가 크게 늘어난 바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증가는 미국계 자금 순매수 증가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순매도 주체였던 유럽계 자금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미국계 자금은 순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여건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신흥국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 증가 추세



- ▶ 신흥국 펀드 내에서 브라질, 러시아, 한국, 대만의 투자 비중 증가
- ▶ 제자리 걸음을 하던 한국 투자 비중은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 전환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늘어나고,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외국인 수급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주요 선진국의 유동성 확대로 글로벌 유동성은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중국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데 대한 부담감과 경착륙 우려 등으로 중국의 투자 비중은 6월 들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신흥국 펀드 내에서 한국 비중(단순 평균)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작년말 8.8%에서 6월말 9.0%). 2013~2014년 인도와 대만,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신흥국 펀드 안에서의 투자 비중이 늘어날 때 한국 투자 비중은 제자리 걸음을 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 실적호전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면, 한국 비중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됩니다.